



가을야구서 체력 소모... K에이스 일본전 땀까

원태인, 올해 184%이닝 투구...문동주도 PS 역투 녹초

체고, 일본과 평가전인 K베이스볼 시리즈를 치르는 한국 야구대표팀의 명실상부한 원투펀치는 원태인(삼성 라이온즈)과 문동주(한화 이글스)다. 원태인은 리그를 대표하는 오른팔 투수이자 벌써 야구대표팀에 10경기나 등판했던 국가대표 간판이며 문동주는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만과 결승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해 금메달을 이끌었다. 그러나 둘은 8, 9일 열린 체고와 평가전에서 등판하지 않았다. 일본으로 건너가 15일과 16일 두 차례 치르는 일본과 평가전에서도 등판이 불투명하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두 선수의 일본전 등판 여부에 말을 아꼈다. 류 감독은 1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대표팀 훈련을 마친 뒤 "가장 중요한 건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시즌이 끝난 직후인) 지금은 욕심을 부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 기량을 선보인 선수로, 대표팀에서는 핵심 투수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며 "두 선수의 일본전 등판 여부는 때가 되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감독의 말대로, 몸이 덜 회복된 가운데 평가전에서 무리해서 등판해 다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원태인 역시 일본전 등판 여부에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일본 가서 (류지현) 감독님과 이야기해보려고 했다"고 했다. 원태인은 올해 정규시즌 27경기에서 166%이닝을 던져 데뷔 후 최대 이닝을 소화했다. 또한 와일드카드 결정전 6이닝, 준플레이오프 6%이닝, 플레이오프 5이닝 등 가을야구에서만 17%이닝을 더 투구해 누적 184%이닝을 던졌다. 문동주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과 플레이오프 1차전에 구원 등판했을 때는 최고 시속 161km까지 던졌던 그는 LG 트윈스와 한국시리즈 5차전에 선발 등판해서는 시속 140km대까지 구속이 떨어졌다.

(위부터 시계 방향) 축구대표팀 손흥민(왼쪽)과 엔스 카스트로프가 11일 충남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진행된 오픈 트레이닝에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11일 충남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진행된 오픈 트레이닝에서 김민재(왼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11일 충남 천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훈련 중인 축구대표팀. 천안=연합뉴스



볼리비아戰 '플랜B'... 중원 새 실험

홍명보호가 남미의 다코호스 볼리비아를 상대로 중원 조합 '플랜B' 테스트를 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이달 A매치 이후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표하는 세계 랭킹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포트가 결정된다. 현재 22위로 포트2 수성의 마지막 노선인 23위 언저리에 있는 한국으로서 이번 A매치 기간 승전고를 울려야 안심할 수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10월 파라과이와 평가전에서 관중이 2만2000여 명밖에 오지 않아 흥행 실패를 겪은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화끈한 승리가 절실하다. 볼리비아전에서 승리해 분위기를 띄워야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가나와 평가전의 흥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홍명보호의 주축 선수들이 잇달아 다쳐 상황은 녹록지 않다. 홍명보호의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시티) 두 중앙 미드필더가 부상

홍명보호 내일 대전서 평가전 '불박이 허리' 황인범 부상 낙마 미드필더 지킬 최고의 짝 물색 카스트로프·김진규 등 물망에 폭이겨야 월드컵 조추첨 유리

으로 소집 해제됐고, K리그1을 주름잡는 2선 공격수 이동경(울산)도 다쳐 이번엔 함께할 수 없다. 대표팀의 불박이 주전으로 활약해온 황인범의 낙마는 특히 뼈아프다. 홍 감독으로서 황인범과 함께 중원을 지킬 '최고의 짝'을 찾는 주요 과제를 일단 미뤄두고 중원 조합의 '플랜B'를 마련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엔스 카스트로프(빈첸글라트바흐), 김진규(전북), 권혁규(강원), 원두재(코르파칸), 서민우(강원) 중에서 어떤 미드필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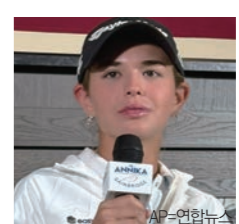
가 홍 감독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약성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무려 1년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단 스트라이커 조규성(미트윌란)의 그라운드 복귀 여부도 관심거리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뽑아냈던 조규성이 제기량을 보여준다면 전형적인 '타킷형 스트라이커'가 없는 홍명보호는 좋은 공격 옵션을 늘릴 수 있다. 소속팀 로스앤젤레스(LA)FC의 미국 메이저리거사커 플레이오프 8강 진출을 일찍 확정 짓고서 열흘 정도 폭 쉬 뒤 볼리비아전을 맞는 '캠턴' 손흥민은 어느 때보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그라운드를 누빌 거로 보인다. 상대 볼리비아의 FIFA 랭킹은 76위로 한국이 54계단이나 위에 있다.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1승 2무 패로 앞선다. 최근 대결인 2019년 3월 울산에서 가진 평가전에선 이창용(울산)의 골로 한국이 1-0으로 이겼다. 그러나 강호들이 즐비한 남미에서 월드컵

컵 예선 7위로 살아남아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지금의 볼리비아는 무시해선 안 될 상대다. 스타는 없지만 조직력과 '파이팅'이 워낙 좋아 때로는 강팀도 꺾절매게 만들곤 한다. 이번 남미 예선 최종전에서는 해발 4100m 고지대로 악명높은 홈구장 엘알토 무니시팔 경기장에서 브라질을 1-0으로 물리쳤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은 "볼리비아는 규율과 조직이 좋고 정신력이 훌륭한 팀"이라면서 "포메이션을 유동적으로 잘 운영하고 측면에서 원어와 왕백 간 콤비네이션도 잘 만드는 편이다. 중앙 미드필드에서 톱패스를 활용한 전환도 괜찮다"고 평했다. 남미 예선에서 활약한 베테랑 중 다수가 이번엔 소집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경험치'가 내려간 점은 변수다. 박찬하 해설위원은 "홍명보호가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골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에 중원 조합을 테스트하기에 적절한 상대를 만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PGA 데뷔 트럼프 손녀 '할아버지가 긴장하지 말래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데뷔를 앞둔 카이 트럼프(사진)가 할아버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언을 소개했다. 트럼프는 13일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안니카 드리븐(총 상금 325만 달러)에 출전한다. 아직 아마추어 선수인 2007년생 트럼프는 이 대회에 초청 선수 자격으로 나온다. 그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진행

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에게 조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즈가 '그냥 대회를 나가서 즐겨라'라는 말을 해줬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흐름을 따라서 즐기면 된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58세 신예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